

『郡齋讀書志』와 『直齋書錄解題』 목록기술방식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Methods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in
Junzhai-Dushuzhi and Zhizhai Shu lu Jieti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2.4 저작역할어(著作役割語)표시 |
| 2. 「군재독서지」와 「직재서록해제」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비교 | 2.5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
| 2.1 표제표시 | 3. 결 론 |
| 2.2 권수표시 | <참고문헌> |
| 2.3 저자표시 | |

< 초 록 >

본 논문은 중국 남송(南宋)의 조공무(晁公武, 1105~1180)가 1151년에 편찬한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와 대략 90여 년 후에 같은 남송의 진진손(陳振孫, 1186?~1262?)이 편찬한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의 목록기술방식을 비교하여 연구한 것이다. 목록기술은 표제, 권수, 저자, 저작역할어,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양 목록에서 채용한 목록기술방식은 전반적인 체례 면에서 유사하여 『서록해제』가 『독서지』를 모방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서록해제』는 『독서지』의 목록기술방식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록기술상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새롭고, 짜임새 있는 기술방식을 구사하는 등 『독서지』보다 진일보한 목록기술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중국 목록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要語: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조공무(晁公武), 진진손(陳振孫), 남송(南宋), 목록기술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6년 12월 3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6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Junzhai-Dushuzhi* (郡齋讀書志) printed by Chao Gongwu (晁公武)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1151 and that of *Zhizhai Shu lu Jieti* (直齋書錄解題) compiled by Chen zhen sun (陳振孫) of the same dynasty based on the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s we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respect to title, volume number, author, word of authorship function, and notable examples. It showed that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s of both were similar and therefore *Zhizhai Shu lu Jieti* imitated *Junzhai-Dushuzhi*. Rather than following the method in *Junzhai-Dushuzhi*, however, *Zhizhai Shu lu Jieti* maintained the unity of its own method and employed it in a new and organized manner. In this regard, *Zhizhai Shu lu Jieti* provided a far more improved method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than *Junzhai-Dushuzhi* and it indicated that *Zhizhai Shu lu Jieti*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bibliography.

Key words: *Junzhai-Dushuzhi*, *Zhizhai Shu lu Jieti*, Chao Gongwu,
Chen zhen sun, the Southern Song Dynasty,
Bibliographical description

1. 서론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는 중국 남송(南宋)의 저명한 목록학자(目錄學者)이자 대장서가(大藏書家)인 조공무(晁公武, 1105~1180)가 1151년(紹興 21)에 24,500여권 1,459부를 대상으로 편찬한 목록이다.¹⁾ 이보다 약 90여년 후인 순유연간(淳祐年間, 1241~1252)에 역시 남송(南宋)의 대장서가이자 목록학자인 진진손(陳振孫, 1186?~1262?)이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를 편찬하는데,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보다 더 많은 3,096종, 51,180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²⁾ 양 목록 모두 개인이 편찬한 가정서목(家藏書目)으로서 사부분류법을 채용했으며 해제목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데다 적지 않은 편찬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의 영향 관계는 많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실제로 중국의 여러 목록학자들이 「직재서록해제」를 편찬하면서 「군재독서지」의 체계를 모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군재독서지」⁴⁾와 「직재서

-
- 1) 晁公武, 郡齋讀書志原序(欽定四庫全書, 史部, 郡齋讀書志, 臺灣: 商務印書館, 1986). 孟昭晉, “晁公武及其『郡齋讀書志』,” 『山東圖書館季刊』 2(1988. 7), 16. 徐元南, “송대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47(2007. 12), 506. 이상용, “『군재독서지』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3(2015. 9), 150.
 - 2) 牛紅亮, “陳振孫與『直齋書錄解題』,” 『河南圖書館學刊』 23(1)(2003. 2), 73. 이상용, “『직재서록해제』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2(2015. 6), 299.
 - 3) 金光洙, “井度、趙希弁對『郡齋讀書志』的貢獻,” 『河南圖書館學刊』 4(31)(2011. 8), 138. 李明傑, “『直齋書錄解題』의版本學成就探析,” 『圖書館』 6(2005. 6), 47. 牛紅亮, “陳振孫與『直齋書錄解題』,” 『河南圖書館學刊』 第23卷 第1期(2003. 2), 73-74.
 - 4) 이상용, “『군재독서지』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3(2015. 9), 149-175. 『四庫全書』에 수록된 『郡齋讀書志』는 卷4까지 晁公武가 편찬한 것이고, 卷5 附志와 『郡齋讀書後志』는 趙希弁이 편찬한 것이다. 위의 논문에서는 「사고전서」에 수록된 「군재독서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卷5와 後志까지 그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군재독서지」와 「직재서록해제」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므로, 「사고전서」에서 晁公武가 편찬한 것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시켰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가 위의 논문과 약간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록해제』⁵⁾의 목록기술방식을 고구하는 과정에서 양 목록 간의 영향 관계와 모방 양태 등에 대한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체례(體例)의 유사성만으로 양 목록 간의 영향 관계를 재단한다면, 시간적으로 앞선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를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가 답습하는 데 그쳤다는 단선적인 평가에 그칠 공산이 커서,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군재독서지』와 『직재서록해제』에서 채용한 목록기술방식을 비교하여 양 목록 간의 유사도를 확인해 볼 것이다. 단지 체례가 유사하다는 피상적인 접근을 넘어 표제, 권수, 저자, 저작역할어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실상에 접근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세부항목별로 내용을 점검하여 『직재서록해제』에 드러나는 특이사항을 추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발견된 『직재서록해제』의 특성이 목록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저본은 문연각 『사고전서』 전자판에 수록된 『군재독서지』와 『직재서록해제』로, 이외의 판본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상이점이 있을 수 있다.

2. 『군재독서지』와 『직재서록해제』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비교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이하 「독서지」라 함)와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이하 「서록해제」라 함)에서 채용한 저록(著錄)의 기입(記入) 방식은 동양의 전통적인 목록기술법인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다. 양 목록의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신서(新序)」의 목록기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이상용, “『직재서록해제』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2(2015. 6), 297-325.

예:

「군재독서지」:

新序 十卷

右漢劉向撰 向當成帝時 典校書 因採傳記行事百家之言 刪取正辭美義可
勸戒者 爲新序說苑 共五十篇 新序陽朔元年上 世傳本多亡闕 皇朝曾子固
在館中 日校正其訛舛而綴緝其放逸 久之 新序始復全

「직재서록해제」:

新序 十卷

漢護都水使者光祿大夫劉向子政撰 舜禹以來迄于周 嘉言善行 往往在
焉 其書最爲近古

먼저 「독서지」의 예를 분석하면, ‘新序’는 표제, ‘十卷’은 권수, ‘右’는 해당 서명을 지칭하는 지시어, ‘漢’은 저자의 소속왕조, ‘劉向子政’은 저자명, ‘撰’은 저작역할어, ‘向當成帝時 … 新序始復全’는 해제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서록해제」의 예를 분석하면, ‘新序’는 표제, ‘十卷’은 권수, ‘漢’은 저자의 소속왕조, ‘護都水使者光祿大夫劉向子政’은 저자명, ‘撰’은 저작역할어, ‘舜禹以來迄于周 … 其書最爲近古’는 해제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양 목록은 전체적인 체제 면에서 유사하지만, 양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독서지」에서는 소속왕조 앞에 ‘右’란 지시어를 관기하였으나⁶⁾, 「서록해제」에서는 관기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서록해제」가 「독서지」에서보다 저자명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이다.

양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술요소는 표제, 권수, 저자의 소속왕조,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부 해제를 포함하여 이들 양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목록기술요소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⁷⁾

6) 목록기술과정에서 ‘右’자를 누락한 경우도 있다. 예) 楚辭 十七卷 後漢校書郎王逸叔師注

7) 본 논문의 성격상, 목록기술요소의 비교분석과정에서 필자의 논문 “「직재서록해제」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2(2015. 6), 297-325와 “「군재독서지」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3(2015. 9), 149-175에서 쓴 내용이나 용례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위의 논문에서 사용한 용례가 유일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새로운 용례로 교체하였다.

2.1 표제표시

표제표시의 경우, 양 목록 모두 동일하게 표시를 한 경우가 있었으며, 표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경우도 있었지만, 양 목록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동일 저작인데 『독서지』의 경우 표제 앞에 저자명을 관기하였지만, 『서록해제』의 경우 그렇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

『독서지』:

苟悅漢紀 三十卷 右漢苟悅撰

邵堯夫擊壤集 二十卷 右皇朝邵雍堯夫 隱居洛陽

『서록해제』:

漢紀 三十卷 漢侍中汝南苟悅仲豫撰

擊壤集 二十卷 處士共城邵雍堯夫撰

특히 집부(集部) 별집류(別集類)의 경우, 그 표제표시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예:

『독서지』:

韓愈集 四十卷 集外文 一卷 右唐韓愈退之也

蔡邕集 十卷 右漢蔡邕伯喈

『서록해제』:

昌黎集 四十卷 外集十卷 唐吏部侍郎南陽韓愈退之撰

蔡中郎集 十卷 後漢左中郎將陳留蔡邕伯喈撰

이처럼 한유(韓愈)와 채옹(蔡邕)의 문집에 대해 『독서지』에서는 『韓愈集』, 『蔡邕集』이라고 표시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昌黎集』, 『蔡中郎集』으로 각각 표시하여 양 목록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2 권수표시

권수표시는 물리적 권수로서 책수(冊數)가 아닌 서지적 권수를 의미한다. 「독서지」와 「서록해제」 양 목록 모두 완질(完帙)의 권수를 표시하였으며, 양 목록 모두 권수의 표시는 숫자 표시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독서지」의 경우, 간혹 두 권으로 이루어진 서적인 경우, ‘二卷’이 아닌 ‘兩卷’이란 표현을 사용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兩卷’이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권수표시의 통일성 측면에서 볼 때, 「서록해제」에서 숫자로 통일했다는 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예:

「독서지」:

非國語 兩卷
求法高僧傳 兩卷

「서록해제」:

易解 二卷

이밖에 서명은 동일한데 양 목록 간에 권수표시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

「독서지」:

碧雲駟 兩卷

「서록해제」:

碧雲駟 一卷

2.3 저자표시

2.3.1 저자의 소속왕조표시

저자의 소속왕조표시의 경우, 「독서지」와 「서록해제」 양 목록 모두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 단위로 표시하고 있었고, 때때로 역조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

한 경우도 있었다. 정통왕조가 아닌 경우에는 왕조 앞에 거짓이라는 의미의 ‘僞’자를 붙여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⁸⁾

그러나 소속왕조표시에서 동일 서적에 대해서 양 목록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독서지』:

茶譜 一卷 右魏僞蜀毛文錫撰

『서록해제』:

茶譜 一卷 後蜀毛文錫撰

양 목록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는 부분은 목록이 편찬된 송나라 때 간사된 서적에 대한 역조명 표시였다. 『독서지』에서는 저자명 앞에 ‘皇朝’라고 관기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저자명 앞에 아무것도 관기하지 않고 저자명을 표시하였다.

예:

『독서지』:

洪範傳 一卷 右皇朝王安石介甫撰

溫公易說 一卷 右皇朝司馬光君實撰

『서록해제』:

周禮新義 二十二卷 王安石撰

老子道德論述要 二卷 司馬光撰

이밖에 저자의 소속왕조가 불분명한 경우, 양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未詳何時人’을 제외하고 양 목록 간에 표현상에 차이를 보였다. 『독서지』에서는 ‘未詳何代人’, ‘未詳何代’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不詳何代人’, ‘未知何時人’, ‘不知何時人’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8) 晁公武, 『郡齋讀書志』(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卷2上.

“中朝故事二卷 右僞唐尉遲偓撰”

陳振孫, 『直齋書錄解題』(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卷7.

“中朝故事二卷 僞唐給事中尉遲偓撰”

예:

「독서지」:

耳目記 二卷 右題云劉氏 未詳何時人
會元經 二十四卷 右孫季邕撰 未詳何代人
徐注西昇經 二卷 右徐道邈撰 句曲人 未詳何代

「서록해제」:

雍裕之集 一卷 唐雍裕之撰 未詳何時人
周易口訣義 六卷 河南史之徵撰 不詳何代人
開顏集 三卷 校書郎周文規撰 未知何時人
補妒記 八卷 稱京兆王績編 不知何時人

2.3.2 저자명표시

「독서지」와 「서록해제」 모두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기술하였다.⁹⁾ 양 목록 모두 각 저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자표시를 하였다. 「독서지」에서는 대개 ‘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관직명이나 출신지를 대개 해제에서 기술한 데 비해,

예:

「독서지」:

周禮疏 四十卷 右唐賈公彥撰 公彥洛州人 永徽中 仕至太學博士

「서록해제」에서는 대개 성(姓)+명(名)+자(字)의 형식 앞에 관직명(官職名)이나 출신지(出身地)를 관기하여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예:

「서록해제」:

韓詩外傳 十卷 漢常山太傅燕韓嬰撰
古禮疏 五十卷 唐弘文館學士臨洛賈公彥等撰

주목할 사항은, 「서록해제」에서 관직명이나 출신지를 관기한 방식이 「서록해제」에서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고, 이미 「독서지」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9)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저자명표시를 표제와 권수 다음에 한 줄로 기술하였다.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

楚辭 十七卷 後漢校書郎王逸叔師注
王弼周易 十卷 右上下經 魏尙書郎王弼輔嗣注

따라서 『서록해제』에서 채용한 이 같은 저자명표시방식은 진진손(陳振孫)이 『서록해제』를 편찬하면서 다른 목록을 참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독서지』의 형식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독서지』와 『서록해제』에서는 위의 용례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양 목록에서 사례를 추출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의 경우, 『독서지』에서는 ‘묘호(廟號)’ 다음에 저작역할어 ‘撰’을 붙였다. 『서록해제』에서도 그렇게 표시한 경우도 있지만, ‘연호(年號)+어제(御製)’ 또는 ‘황제(皇帝)+어제(御製)’의 형식으로 표시하여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御製’란 저작역할어를 사용하여, 그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해 주었다.

예:

『독서지』 :
唐六典 三十卷 右唐玄[실은 玄]宗撰 李林甫張說等注
老子疏 六卷 右唐玄宗撰

예:

『서록해제』 :
帝範 一卷 唐太宗撰
聖濟經 十卷 政和御製
翰墨志 一卷 高宗皇帝御製

2) 명찬서의 경우, 『독서지』에서 사용한 ‘被旨’, ‘被詔’란 표현을 『서록해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 『서록해제』 명찬서의 사용례는 『독서지』와 별 차이가 없었다. 명찬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용례를 살펴보아도, 『서록해제』에서 ‘命’자를 사용한 것 외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독서지』에서 명찬서로 저자명표시를 한 서적에 대해 『서록해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

「독서지」:

新唐書 二百二十五卷 右皇朝嘉祐中曾公亮等被詔刪定
中書備對 十卷 右皇朝元豐三年畢仲衍承詔編次

「서록해제」:

新唐書 二百二十五卷 翰林學士廬陵歐陽修永叔 端明殿學士安陸宋祁
子京撰
中書備對 十卷 太常丞檢正戶房公事管城畢仲衍夷仲撰

서술적인 방법으로 명찬서의 저자표시를 한 경우에도 양 목록 간에 표현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예:

「독서지」:

太平廣記 五百卷 右皇朝太平興國初 詔李昉等取古今小說編纂成書

「서록해제」:

太平廣記 五百卷 太平興國二年 詔學士李昉扈蒙等修御覽 又取野史傳
記故事小說撰集 明年書成

이처럼 「독서지」에서는 ‘太平興國初’라고 표현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太平興國二年’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해를 명시하여, 「독서지」에서보다 좀 더 자세히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3) 「독서지」에서는 승려의 서적에 대해 저자명 앞에 ‘僧’을 쓰기도 하고, 간혹 ‘釋’ 또는 ‘僧釋’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서록해제」에서는 ‘僧’이란 표현은 사용했지만, ‘釋’이란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沙門’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

「독서지」:

高僧傳 六卷 右梁僧惠敏撰
英公字源 一卷 右皇朝釋夢英撰
廣弘明集 三十卷 右唐僧釋道宣撰

『서록해제』 :
物類相感志 一卷 僧贊寧撰
詩格 一卷 沙門神彧撰

4) 양 목록 모두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는데, 『독서지』에서 서술형으로 저자를 표시한 서적에 대해 『서록해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예:
『독서지』 :
史記 一百三十卷 右漢太史令司馬遷續其父談書
河南志 二十卷 右皇朝宋敏求以唐韋述兩京記爲未備 演之爲長安河南志 司馬光爲之序

『서록해제』 :
史記 一百三十卷 漢太史令夏陽司馬遷子長撰 宋南中郎參軍河東裴駙集註
河南志 二十卷 宋敏求撰 司馬溫公序之

5) 여성저작의 경우, 동일한 여성의 저작에 대해 양 목록 간에 차이가 보였다. 당나라의 여류시인인 설도(薛濤)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
『독서지』 :
薛濤錦江集 五卷 右唐薛濤洪度也 西川樂妓 工爲詩

『서록해제』 :
薛濤集 一卷 唐成都妓女薛濤撰

설도(薛濤)에 대해 『독서지』에서는 성+명+자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서천(西川)의 악기(樂妓)라고 설명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지역명+기녀+성+명의 형식으로 기입하여 저자명표시 안에서 그녀의 신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

6)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양 목록의 저자명표시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독서지』에서는 ‘不題撰人’, ‘未詳撰人’, ‘不著撰人’, ‘不題撰人姓名’, ‘不著撰人

姓名’, ‘不見撰人姓名’, ‘不載撰人’, ‘不載撰人姓名’, ‘未詳何人撰’, ‘未見撰人’, ‘不知何人’ 등을 사용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不知何人’을 제외하고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不著名氏’, ‘無名氏’, ‘不知作者’, ‘不知何人作’, ‘不知何人所集’, ‘不知集者’, ‘不著作者’, ‘不知何人所錄’, ‘不著撰者名氏’ 등 『독서지』와 확연히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이밖에 『독서지』에서 저자미상으로 표시한 서적에 대해 『서록해제』에서 그 저자명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예:

『독서지』:

紹運圖 一卷 右未詳何人所撰

『서록해제』:

紹運圖 一卷 諸葛深通甫撰

2.4 저작역할어(著作役割語) 표시

저작역할어의 경우, 『독서지』와 『서록해제』 양 목록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양 목록 모두 ‘撰’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독서지』에서 사용한 ‘纂’, ‘注’, ‘編’, ‘集’, ‘集注’, ‘編次’, ‘校定’, ‘重修’, ‘譯’, ‘解’, ‘傳’, ‘撰集’ 등 대부분의 저작역할어를 『서록해제』에서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사항은 『서록해제』에서는 ‘校正’, ‘箋’, ‘集進’, ‘修纂’, ‘集次’ 등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저작역할어를 사용하여, 『독서지』보다 저작역할어를 다양하게 구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저작역할어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金匱要畧 三卷 張仲景撰 王叔和集林億等校正

毛詩 二十卷 毛詩故訓傳 二十卷 漢河間王博士趙人毛公撰 後漢大司農鄭康成箋

景祐天竺字源 七卷 僧惟淨等集進

三朝訓鑿圖 十卷 學士李淑 楊偉等修纂

周子通書遺文遺事 一卷 侍講朱熹集次

또한 「독서지」와 「서록해제」 양 목록 모두 저작역할어를 서술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는데, 「서록해제」에서는 「독서지」에서 사용한 ‘所撰’, ‘所纂’, ‘所定’ 등의 저작역할어 외에 ‘所編’, ‘所校’, ‘所書’, ‘所傳’, ‘所編集’, ‘所刪定’ 등 「독서지」에서 표현하지 않은 다양한 저작역할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록해제」에서 새로 사용한 저작역할어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 木鐸集 十二卷 張洎所編
- 古禮 十七卷 釋文 一卷 識誤 三卷 永嘉張淳忠甫所校
- 金剛經 一卷 唐武敏之所書
- 治風方 一卷 張未文潛所傳
- 綸言集 三十一卷 宇文粹中 虛中兄弟所編集
- 唐令 三十卷 式 二十卷 唐開元中宋璟 蘇頌 盧從愿等所刪定

이밖에 특징적인 사항으로, 「독서지」의 별집류(別集類)에서는 저작역할어 표시를 대부분 생략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저작역할어를 표시하여, 전체적인 목록기술적 입장에서 볼 때 「독서지」에서 보다 통일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겠다.

예:

「독서지」:

- 陸機集 十卷 右晉陸機士衡也
- 陶潛集 十卷 右晉陶潛淵明也

「서록해제」:

- 陸士衡集 十卷 晉平原內史吳郡陸機士衡撰
- 陶靖節集 十卷 晉彭澤令潯陽陶潛淵明撰

2.5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공저자의 목록 기술에서는 형식적인 면에서 거의 유사했다. 다만 「독서지」에서는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與’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한 다음 그 이외의 공저자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等同撰’이라고 표시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독서지」와 같은 방식으로 저자표시를 하되, 맨 마지막에 「독서지」에서 사용했던

‘等同撰’이란 표현 대신, ‘等撰’ 또는 ‘等共爲之’라고 표시하여 표현상에 차이를 보였다.

예:

「독서지」:

周易正義 十四卷 右唐國子祭酒孔穎達與顏師古司馬才章王恭馬嘉運趙乾
叶王談于志寧等同撰

「서록해제」:

毛詩正義 四十卷 唐孔穎達與王德韶等撰
尙書正義 二十卷 唐孔穎達與博士王德韶等共爲之

이밖에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나오는 경우, 특정서적과 관련된 후집(後集)이나 속집(續集) 또는 별집(別集)과 같이 보유적 성격을 띤 저작이 나오는 경우, 양 목록의 목록기술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3. 결 론

본 논문은 남송의 진진손(陳振孫, 1186?~1262?)이 「직재서록해제」를 편찬하면서 조공무(晁公武, 1105~1180)의 「군재독서지」를 모방했다는 중국목록학자들의 평가에 착안하여, 양 목록의 목록기술방식을 비교하여 영향 관계를 밝히고 그 구체적 모방 양태를 고구한 것이다. 그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서지」와 「서록해제」 양 목록의 각 저록의 기입(記入)은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였으며, 각 저록의 서지적 기술 요소는 표제, 권수, 저자의 소속 왕조,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체례 면에서 「독서지」와 「서록해제」는 유사했다. 양 목록 간에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독서지」에서 사용한 서명을 지칭하는 대명사 ‘右’를 「서록해제」에서 생략했다는 점이다.

표제표시의 경우, 양 목록 모두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사하였다. 하지만, 「독서지」의 경우 표제 앞에 저자명을 관기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집부(集部) 별집류(別集類)의 경우, 그 표제표시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였다.

권수표시의 경우, 『독서지』와 『서록해제』 양 목록 모두 완질(完帙)의 권수를 표시하였으며, 양 목록 모두 권수의 표시는 숫자 표시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독서지』의 경우, 간혹 두 권으로 이루어진 서적인 경우, ‘二卷’이 아닌 ‘兩卷’이란 표현을 사용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兩卷’이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권수표시의 통일성 측면에서 볼 때, 『서록해제』에서 숫자로 통일했다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

저자표시는 저자의 소속왕조표시와 저자명표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저자의 소속왕조표시의 경우, 『독서지』와 『서록해제』 양 목록 모두 유사한 형식을 취했다. 양 목록 간에 가장 큰 차이는 송나라 때 간사된 서적에 대한 역조명 표시였다. 『독서지』에서는 저자명 앞에 ‘皇朝’라고 관기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저자명 앞에 아무것도 관기하지 않았다. 이밖에 저자의 소속왕조가 불분명한 경우, 양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未詳何時人’을 제외하고, 『독서지』에서는 ‘未詳何代人’, ‘未詳何代’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不詳何代人’, ‘未知何時人’, ‘不知何時人’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독서지』와 『서록해제』 양 목록 모두 각 저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자표시를 하였다. 『독서지』에서는 대개 ‘성(姓)+명(名)+자(字)’의 형식으로 저자명표시를 기술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대개 성(姓)+명(名)+자(字)의 형식 앞에 관직명(官職名)이나 출신지(出身地)를 관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서록해제』에서 채용한 이 방식은 이 목록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독서지』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저자명표시방식은 진진손이 『서록해제』를 편찬하면서 다른 목록을 참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독서지』의 형식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독서지』와 『서록해제』에서는 위의 용례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양 목록에서 사례를 추출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의 경우, 양 목록 모두 저작역할어 ‘撰’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서록해제」에서는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御製’란 저작역할어를 사용하여, 그 역할을 보다 분명히 표시해 주었다.
 - 2) 명찬서의 경우, 「독서지」에서 사용한 ‘被旨’, ‘被詔’란 표현을 「서록해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 「서록해제」 명찬서의 사용례는 「독서지」와 별 차이가 없었다. 명찬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용례를 살펴보면, 「서록해제」에서 ‘命’자를 사용한 것 외에 별 차이가 없었다.
 - 3) 「독서지」에서는 승려의 서적에 대해 저자명 앞에 ‘僧’을 쓰기도 하고, 간혹 ‘釋’ 또는 ‘僧釋’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서록해제」에서는 ‘僧’이란 표현은 사용했지만, ‘釋’이란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沙門’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 4) 양 목록 모두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는데, 「독서지」에서 서술형으로 저자를 표시한 서적에 대해 「서록해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 5) 여성저작의 경우, 동일 여성의 저작에 대해 양 목록 간에 차이가 있었다. 「독서지」에서는 성+명+자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녀의 지역과 신분을 설명해 준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저자명표시 안에서 그녀의 지역과 신분을 함께 표시해 주었다.
 - 6)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양 목록의 저자명표시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독서지」에서는 ‘不題撰人’, ‘未詳撰人’, ‘不著撰人’, ‘不題撰人姓名’, ‘不著撰人姓名’, ‘不見撰人姓名’, ‘不載撰人’, ‘不載撰人姓名’, ‘未詳何人撰’, ‘未見撰人’, ‘不知何人’ 등을 사용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不知何人’을 제외하고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不著名氏’, ‘無名氏’, ‘不知作者’, ‘不知何人作’, ‘不知何人所集’, ‘不知集者’, ‘不著作者’, ‘不知何人所錄’, ‘不著撰者名氏’ 등 「독서지」와 확연히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 저작역할어표시의 경우, 양 목록 모두 ‘撰’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纂’, ‘注’, ‘編’ 등 「독서지」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저작역할어를 「서록해제」에서 사용하

였다. 그러나 『서록해제』에서는 ‘校正’, ‘箋’, ‘集進’, ‘修纂’, ‘集次’ 등 『독서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저작역할어를 사용하여, 『독서지』보다 저작역할어를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저작역할어를 서술적으로 기술한 경우를 보아도, 『서록해제』에서는 『독서지』에서 사용한 ‘所撰’, ‘所纂’, ‘所定’ 등의 저작역할어 외에 ‘所編’, ‘所校’, ‘所書’, ‘所傳’, ‘所編集’, ‘所刪定’ 등 『독서지』에서 표현하지 않은 다양한 저작역할어를 사용하였다. 이밖에 양 목록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독서지』의 별집류(別集類)에서는 저작역할어 표시를 거의 생략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저작역할어를 표시한 점으로, 전체적인 목록기술적 입장에서 볼 때 『독서지』보다 통일성을 기했다.

기타 특기할 만한 목록기술 사례의 경우, 공저자의 목록 기술에서는 형식적인 면에서 거의 유사했다. 다만 『독서지』에서는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與’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한 다음 그 이외의 공저자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等同撰’이라고 표시한 데 비해, 『서록해제』에서는 『독서지』와 같은 방식으로 저자표시를 하되, 맨 마지막에 『독서지』에서 사용했던 ‘等同撰’이란 표현 대신, ‘等撰’ 또는 ‘等共爲之’라고 표시하여 표현상에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양 목록에서 채용한 목록기술방식은 전반적인 체례 면에서 유사하여 『서록해제』가 『독서지』를 모방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서록해제』는 『독서지』의 목록기술방식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록기술상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새롭고, 짜임새 있는 기술방식을 구사하는 등 『독서지』보다 진일보한 목록기술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중국 목록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金光洙. “井度、趙希弁對『郡齋讀書志』的貢獻.” 『河南圖書館學刊』 4(31)(2011. 8). 138-139.
- 리상용. “『직재서록해제』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2(2015. 6). 297-325.
- 리상용. “『군재독서지』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3(2015. 9). 149-175.
- 孟昭晉. “晁公武及其『郡齋讀書志』.” 『山東圖書館季刊』 2(1988. 7). 16-18.
- 徐元南. “송대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47(2007. 12). 499-521.
- 牛紅亮. “陳振孫與『直齋書錄解題』.” 『河南圖書館學刊』 23(1)(2003. 2). 72-74.
- 李明傑. “『直齋書錄解題』의 版本學成就探析.” 『圖書館』 6(2005. 6). 47-50.
- 晁公武. 『郡齋讀書志』(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 陳振孫. 『直齋書錄解題』(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 <<http://baike.baidu.com>>.

